



‘혼신의 한 칼’... 광주 검도 금맥 잇는다

스포츠 포커스

전국체전 대학부 우승 노리는 조선대학교 검도부

“이야! 머리! 손목!”
 지난 21일 서석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17인의 조선대학교 검객들이 저마다 자신의 독특한 기합소리를 내며 상대방에게 타격을 하거나 개인연습에 여념이 없다.
 한쪽에서는 인선전전문대 선수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련이 벌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김현준(52)조선대학교 검도부 감독의 지도 아래 강도높은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오후 3시부터 이어진 훈련은 두시간이 지난 지만 오히려 강도를 더 높인다. 호면 사이로

대구대·용인대와 전국 최강 겨뤘

구슬같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리지만 한 순간도 게으름을 필 수 없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년 농사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가 고향 광주에서 14년만에 열리기 때문에 더욱 속도 휘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지난 2005년 울산 전국체육대회에서 검도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던 조선대학교 검도부는 대구대학교와 용인대와 더불어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 이번 고향에서 벌

어지는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특히 조선대학교 출전 팀중 단체팀으로는 금메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고향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가 검도부 어깨에 걸려 있다.
 조선대학교 검도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나 1990년까지 선수 부족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침체를 거쳐 1991년 김현준 감독이 부임하면서 단번에 정상권으로 발돋움 했다.
 특히 서석중·고등학교의 우수한 체육 인재들이 대학 팀이 없어 타 시·도로 진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인재들을 고스란히 수용해 전국 최강의 광주 검도 위상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도 7단의 김현준 감독은 현재 조선대학교 산하 지원팀 과장이 정식 직함이다. 검도부 감독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 감독 보수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익도 없다. 단지 검도가 좋고, 선수들과 함께 부대끼고 실력이 늘어가기를 보는 것이 좋을 뿐이다.

이처럼 김 감독의 검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몸을 사리지 않는 지도 덕분에 조선대학교 검도부는 전국에서도 끈끈한 팀워크로 정평이 나온다.

김현준 감독 체제 팀워크 ‘탄탄’

감독과 선수의 끈끈한 유대감에 서석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선수들이 고스란히 조선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후배의 질서도 전국최강의 밑받침이 됐다.
 최철규(4년)주장은 “북구청 실업팀 선배들부터 서석중·고등학교 까지 모두가 선·후배로 위계질서가 잡혀 있는데다 큰 대회를 앞두고 함께 합숙훈련을 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긍지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 검도팀은 최철규와 오성훈(2년), 우재동(1년)이 한국대학학생부에 선발돼 5인조전에서 막강 전력을 갖추고 있다. 최철규는 올 SBS 전국검도왕대회 개인전 우승, 제49회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 준우승, 제6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 개인전 우승 등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오성훈도 최철규와 우재동 준우승을 다룬 정도며 우재동은 개인전 3

위 입상 전력이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은 조선대 검도팀은 제6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며 올 광주 전국체전대학부 우승을 부풀리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오전 수업 원칙 때문에 22일까지는 오전수업을 받고 오후 3시부터 기본동작, 응용동작 훈련, 밤 8시30분부터 11시까지 공격연습과 실전연습을 통해 실전감각을 키우고 있다.

고향 명예 걸고 체전 반드시 우승

10월 6일까지는 훈련 강도가 더욱 강해진다. 새벽 6시 30분~7시 30분까지 아침운동, 오전 9시30분~12시까지 오전운동이 이어지고, 오후 3시30분~7시까지 오후운동 후 밤 8시~11시까지 야간 훈련이 끝나야 자리에 들 수 있다.
 김현준 조선대학교 감독은 “14년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 만큼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며 “선수들도 고향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어 금메달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머리치기 연습〉



〈겨루기〉



왼쪽 아래부터 문한란, 김승현, 김슬, 강성민, 정재호, 추교회 선수. 뒤줄 왼쪽부터 최철규, 김준하, 이정훈, 배성인, 강전일, 오경석, 오성훈, 우재동 선수, 김현준 감독.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홈 마트 광산구원남동 금구초등학교 건너 지하 대형마트 대표 박석자 ☎(062)952-2249	솔씨좋은이모네 운남동 삼성APT입구 사브시브전문점 단체 & 모인예약회원 대표 이귀자 ☎(062)954-3533	한라곰창전골·삼겹살 북구 원남동 신항사막모던 곰창전골·삼겹살·소머리국밥의 것값백반 대표 차정민 ☎(062)571-2374	아이닥터안경점 신수오거리에서 우체국방향 사무실 이전 사은품증정(3인원·우산·8인원·양산) ☎(062)223-4515	동원 철학원 방림동 봉선초등학교 옆 '30년전통의 철학원 개원' 시주·작업·풍수·택일 ☎(062)433-2555	엄마손심내포장마차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앞 누치볶음, 해물피전, 이구장, 동동주 카드사용가능 ☎(062)515-6767	
	장원 식당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우이프리자점 신원해산사저택내, 야구장,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062)251-7161	무진열쇠철물 운남동 목련마을 5·6단지 사이 육교 앞 디지털키, 시공, 키복제, 일반철물, 방충망 청소용품, 전기재료, 영글기타공구 ☎(062)961-7754	까메리노레스토랑 풍암동 삼일교회 건너편 이탈리아 레스토랑 대표 장현영 ☎(062)655-0969	강강슬래 풍암동 1034번지 한우(600g) 23,000원 삼겹살 가격으로 한우를 구워드립니다 ☎(062)682-5231	고향 맛 집 서구 농성동 서구청과 삼복화관사이 '추어탕전문점' 대표 심정식 ☎(062)369-3331	두꺼비게장백반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옆 동백정 앞 게장백반, 이구장, 이구장, 꽃게장 등 양념게장은 서비스, 단체 손님 환영 ☎(062)521-4694	
햇살치킨 양산동 우미@상가 우리 입맛에 맞는 햇살치킨 대표 옥근수 ☎(062)576-9979	우산골생고기 문흥동 대주@206동 앞 생고기, 육회, 소창, 구이, 돼지고기, 소머리국밥 오리로스, 생비빔밥, 들깨비빔밥, 소머리국밥 ☎(062)269-6600	(주)송영엔틱 광산구 원남동 호반@와 부영@사이 엔틱가구 제조전문, 공장직영 대표 노송연 ☎(062)972-4959	화석시대 봉선동 145번지 무등파크1차위 들판구이 생선점, 생선전문점 대표 이기술 ☎(011)9613-3916	웰빙&아이티샵 남구 양림동 양림교회 옆 친환경생물농품, 각종식품, 컴퓨터주방및AVS 네트워크, 카드결제, 전화주문, 신수배달 ☎(062)674-4442	청해진해물갈국수 두암동 은행원두 두암목욕탕 앞 비리떡볶음, 구수, 해물탕(전골), 해물탕, 콩국물 단체예약 환영 ☎(062)261-1021	가보리식당 북동 유영역과 신한생명사이 요일별 점심식사 할·매운탕, 화·누치볶음 수·불새미, 특·계육볶음, 금·꾸꾸미, 볶음 전문 ☎(062)522-4791	신정개발(주) 매월동 신안동 우등센터 206동 216호 칠근크리크, 토공 공사전문업체 대표 전대성 ☎(062)603-3717
바닷가 송하동 광주대학교 사거리 자연산 활어 전문점 점심메뉴 한정식, 갈치조림 ☎(062)676-1117	다도해유등 우산동 무등중학교에서 대주@입구 50M 고등어, 삼치, 이면수(전공포집), 영광굴비 도·소매점 전화 및 인터넷 판매, 전국 택배 가능 ☎(062)262-0061	생크닥터 봉선동 사거리 봉선우체국 위 불닭이장, 신발정, 생크, 맛술기구 전문 대표 최경훈 ☎(062)673-3119	김현철공인중개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옆 모이상가 이피드, 상가, 토지, 분양권 경매 대표 김현철 ☎(010)2626-8924	아 이 리 스 금남로1가 진내교2층 에스프레소, 스페셜티커피, 안경점 대표 이진령 ☎(062)222-8938	다랑에 참치전문점 삼무지구 미스터초밥 옆 에코노블1층 ☎(062)373-7388	맷 들 동구 학동 학동사우와 학동동성당 사이 썩과 녹치로 만든 콩물국수 전문점 대표 박현주 ☎(062)224-8282	다이 스 매월동 신안동 우등센터 103동 116~117호 산업용제 및 공업용제 안전용품, 취급전문업체 ☎(062)603-3800
토마토테라피 진월동 구혜테이트 옆 아이인@가 대표 권성심 ☎(062)676-8116	웰빙할인마트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우이프리자점 신원해산사저택내, 야구장,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동아대 ☎(062)263-5111	양촌리통닭 운남동 목련초등학교 건너 통닭전문점 대표 최경귀 ☎(062)954-9933	열린건강클리닉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경원스포츠센터 2층,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방문고대 무료 "기"정검해드립니다 ☎(062)268-9929	콩깍지소주방 화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역 지하 2층 모든 안주 무조건 6,000원 대표 최민화 ☎(062)381-3379	e-쁘지오 봉선동 봉선우체국 옆 2층 전문 셀프다이어트 전문점 원장 김정순 ☎(062)655-1108	닥터포닥터 오차동 오차사거리 코너 무릎, 허리, 관절, 보온용 건강화도신발 대표 오용식 ☎(062)512-3221	예 술 식 당 지산동 법원 승강장 옆 생고기, 갈비, 생채, 생채, 생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2)222-9998